

지역균형발전 '역주행'

朴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국립시설 운영 떠넘기기 취득세 인하에 광주 유치 국제대회도 경제논리 고집

박근혜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때 지역의 반발로 좌초됐던 수도권 규제완화를 다시 추진하는가 하면 집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라며 지방세인 취득세를 갑자기 인하하기로 하고, 무상보육 확대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국가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 국립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광주과학관에 대해서도 법인화로 전환해 지방 정부에 관리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 정부에서 수년간 노력해 유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해서도 느닷없이 예산지원 철회 방침을 밝히는 등 지방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방없는 수도권 정책'에 대해 국가정책을 기획·결정하는 중앙부처 공직자와 다수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를 견제해야 할 중앙 언론인들마저 수도권에 거주하다 보니 정책의 방향이나 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출생지는 다르지만 수도권에서 사는 속칭 '수도권 환우회'가 팔팔 뚱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시급한 이유다.

◇지방 축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현재진행형'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수도권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다가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던 수도권 일부 지역 내 공장 신·증설과 대학이전 등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까지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강력 반발하면서 해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잠정 보류됐다. 일단 중단됐으나 언제 다시 추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취득세 인하·무상보육 확대 지방살림 무도 위기=정부는 집체된 부동산 경기 등을 살리겠다고 토지, 건물 등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를 인하계획을 들고 나왔다. 취득세는 전국 지자체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내리면 광주·전남의 경우 연간 1519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전국 시·도 단체장들이 취득세율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했고, 전년대비 광주는 486억원, 전남은 905억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양 시도는 현재 증가한 예산 중 700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마찰도 이어지고 있다.

◇국립시설을 운영도 지방에 떠넘기기=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국립과학관 등 광주에 들어서는 국립시설의 법인화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있다. 국립시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기관을 법인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8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립광주과학관의 운영비도 정부가 100% 부담해야 하지만, 결국 40%를 광주시에 떠넘겼다.

◇지방 유치 국제대회는 경제논리 공 보고회=광주시는 2년간의 노력 끝에 중국 심천과 일본 도쿄가 탐냈던 2022년 2차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는 유치 과정에서 일어난 '공문서 위조'를 빌미로 재정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지방 유치 국제대회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지원도 최소화한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광주가 유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1.7(1 이상이면 경쟁성 우수)을 받은 경제성이 우수한 국제대회인데도, 보증서 위조 문제를 꼬투리 잡아 예산지원 중단 입장을 밝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행기자 lucky@kwangju.co.kr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성공 보고대회'가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강문태 광주시장과 이기흥 대한수영연맹회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성공 보고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성공 보고회가 30일 오후 1시4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4층에서 열렸다.

(재)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보고회에는 강문태 광주시장과 이기흥 대한수영연맹회장, 박재자·이응섭·임내현·박주선·김재운 국회의원, 조호근 광주시의회 의장,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수영대회 유치 영상 상영,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축사, 성공개회 다짐 결의대회,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체육계의 숙원인 수영대회 유치는 광주 의 기쁨 이전에 대한민국의 영광"이라며 "공문서 위조 등 범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회의장,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어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세계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광주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개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재운 의원은 보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처벌하되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서 위조 등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며 "유치에 성공한 만큼 성공리에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흥 대한수영연맹회장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성공개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정부,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속 전남도 신안 풍력전용산단 조성 용역

전남 서남권 재추진 ... 성사 여부 관심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유역) 구조조정 방침 속에 전남도가 서남권경자유역 지정용 재추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는 30일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남권경자유역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남권경자유역은 신안군 일대 압해, 자은, 안좌 등 3개 지구 18.4km를 해상풍력전용산단 및 해양관광거점 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와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이곳을 경자유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한 지역에 한 개의 경자유역을 허용하는 '1도 1경자유역' 원칙에 따라 전남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또 정부는 최근 광양만권 등 기존 경자유역 8곳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기존 경자유역도 개발이 더딘 경우 구조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년)'을 확정해 서남권경자유역 추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었다.

하지만 전남도는 서남권경자유역 지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효과 등을 따져본 뒤 오는 12월 세 번째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서남권경자유역 지정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며 "중국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인 전남 서남권을 경자유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현재 ▲인천, 평택, 군산, 목포를 잇는 '서해안벨트'를 경자유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1도 1경자유역' 원칙에 따라 전남지역에 이미 운영 중인 광양만권경자유역의 한 개 지구로 서남권을 지정하는 방안 ▲서남권의 규모를 축소해 지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

빛의만평

- 김중두

더우니 일주일 폭 쉬었다 합니다

국민들 열나게 하는 재주는 타고났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무안 - 심양전세기 [7/26~9/30 매주 월,수,금]

심양 / 백두산서퍼 5일[월]

일급 1,090,000 특급 1,190,000 불포함: 유류세(W86,000), 기사&가이드 팁

심양/백두산서퍼/북퍼 6일[수/금]

일급 1,190,000 특급 1,290,000 불포함: 유류세(W86,000), 기사&가이드 팁

무안공항에서 동방항공으로 떠나는 상해/구제구 6일

일급 1,299,000

일본 규슈 온천 여행

여름휴가, 방학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별장으로 GO, GO!!

강추 히타 고급 별장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299,000~

출발일 8/9, 15, 18, 23, 28

※출발 가능한 인원: 최소 6명, 최대 20명

※불포함 사항: 선내식사 3식,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추석연휴 9/20~23일 히타 고급 별장으로 떠나는 규슈 3박4일 399,000~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 야마가치 별장 온천즐거기 4일 399,000~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 전통료칸 야마가치 온천즐거기 4일 539,000~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템즈 4일 629,000~

출발일 8/9, 15, 18, 23, 28

규슈, 유후인 벵부, 히타, 아소 + 전통료칸 야마가치 온천즐거기 3일 749,000~

오사카&와카야마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제일의 상업도시 오사카&아름다운 태평양과 환상적인 온천이 어울어진 와카야마!!

ALL포함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동굴온천 4일 1,100,000~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필리핀여행

7월 25일부터 무안(→)마닐라 직항 취항(매주목,일요일 출발)

8/8일 딱 하루!! 선착순 10명 한정특가 마닐라, 따기이따이, 팍산한폭포 3박 4일

ALL포함 779,000 특급 819,000

특가 마닐라 보라카이 4박 5일 749,000~ 특급 799,000~

마닐라/보홀 4박 5일 1,149,000~ 특급 1,239,000~

무안공항 출발 베트남 전세기

8/5, 8/9

다낭+호이안+후에성 1,099,000~

다낭+호이안 (아일랜드호핑투어 +스노쿨링) 1,149,000~ 특급 1,299,000~

몽고메리C.C + 다낭C.C (주중기준) 1,449,000~ 특급 1,599,000~

여름방학 기획특가

무안-북경/만리장성 4일 399,000~

무안-북경/만리장성 5일 469,000~

무안-북경/태항산 4일 799,000~

무안-북경/태항산 5일 849,000~

불포함: 유류세, 기사&가이드팁, 중국단체비

국내여행/섬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26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W10,000), 식식, 유류할증료(W22,000)

선박 목포-제주도 2박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W10,000), 현지저택관광, 자유식식

9/5 출발 확정!! 인천/연길 백두산 4일 1,050,000

ALL 포함!! 불포함: 개인적인 경비, 광주-인천 수송비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광주출발 목포항 도착 셔틀버스포함

홍도, 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48,000~

포함사항: ALL포함, 장급(합숙기준)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도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광동초간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기입(예상) 1억원, 국내상품권 5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포함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